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 및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arenting Stress, Neglectful Mediation of Smart Media, and Preschool Children's Over Use of Smart Media

장지우¹ 김선희²

Jiwoo Jang¹ Sunhee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ternal parenting stress, neglectful mediation of smart media and the over use of smart media in preschool children.

Methods: Quantitative surveys were conducted to measure maternal parenting stress, smart media neglect mediation, and over use of smart media in preschool children.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neglectful smart media mediation i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school children's over use of smart media was verified using the Amos 23.0 and SPSS 26.0 programs

Results: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mother's neglectful mediation of smart media had a direct effect on preschool children's over use of smart media. In addition, mother's neglectful mediation of smart media mediated the influence of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er children's over use of smart media.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t role of maternal stress in preschool children's over use of smart media. And maternal competence such as supervision and limit setting is an important role in preschool children's use of smart media,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actical and diverse parenting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reduce.

¹ 제1저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²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 kremedy@pusan.ac.kr)

key words maternal parenting stress, smart media mediation, over use of smart media

I. 서론

스마트미디어(smart media)란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에 인터넷을 결합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동영상이나 게임, SNS, 이메일 문서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매체로(김윤나, 박희숙, 2016)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 티비, 태블릿 기기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스마트미디어는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김윤경 등, 2018) 연령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할 수 있어서 언어적 능력이 아직 미숙한 유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김환남 등, 2014). 유아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거나, 스트리밍 앱을 이용하여 동요나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시청하고, 게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적절한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유아들이 스마트미디어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 두뇌발달의 저하, 신경발달의 지연(Bremer, 2005; Kuss & Griffiths, 2012), 공격성의 증가, 주의집중력의 저하, 사회성의 감소, 우울감의 증가, 짜증의 증가(서민영, 임은미, 2010; 이현주 등, 2015; 제정희, 2021; 최윤희, 2022), 언어발달의 지연, 수면문제, 실행기능의 문제 등(김은지, 진귀연, 2020; 임명희, 박윤조, 2011; 진초원, 2014; Jackson et al, 2011)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의 과다사용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아들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기는 점점 더 저연령화되고 있고(김윤경 등, 2018), 최근에는 코로나(covid-19)로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을 통한 보육이 증가하고 유아들의 바깥 놀이가 제한되면서 가정 내 스마트미디어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석민아 등, 2021).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은 25%로 나타나 전체 연령 중에서 2위였으며, 증가율도 전체 연령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유아들의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유아들의 경우 스마트미디어 사용은 가정환경과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강보람, 이강이, 2018). 그리고 유아들은 아직 자기 조절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중간에 스스로 중단하기 어려워 쉽게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장지우, 김선희, 2020). 따라서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책임을 강조하며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보다 어머니의 올바른 지도와 예방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들이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어머니의 지도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이 있는 부모변인 가운데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하지영, 2021). 스마트미디어 중재란 자녀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적극적인 양육행동(Clark, 2011)을 의미한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기 소유의 스마트미디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유아들은 대부분 부모 소유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김민석, 문혁준, 2015). 그리고 유아들은 대부분 부모나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스마트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최윤희, 2022) 어머니의 중재가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적극적 중재, 공동시청중재, 제한적 중재와(Livingstone & Helsper, 2008)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고, 방임적 중재의 경우 실제 검증한 연구결과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임적 중재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정에

서 부모의 감독 등 별다른 제한이 없는 중재를 의미한다(박소영, 2015).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로 인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위험성은 부모의 모니터링, 즉 감독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주장(정여주 등, 2022)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Beyens 등(2019)은 발달적 중재(developmental mediation)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부모의 중재는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유아기 동안 부모의 제한적 중재가 점차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들의 사용과정에서 어머니의 제한이나 감독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방임적 중재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하여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할 때 주로 동요, 동시,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물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시청하고 있다(Suárez-Álvarez, 2022). 이런 영상서비스는 유사한 영상물을 연속 재생하는 추천기능이 있어 자동적인 재생과정에 따라(김은영, 임신일, 2021) 장시간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임적 중재는 이런 연속적인 미디어 재생과정에서 어머니의 감독이 부재하여 사용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유아들의 조절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결국 과다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증가와 관련이 높은 변인이었다(Warren & Aloia, 2019).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의 요구와 어머니의 대처 사이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어머니의 심리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Warren & Alois, 2019). 유아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유아는 강하게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때를 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박세령, 2021) 어머니는 빈번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raune-Krickau et al, 2021; Crum & Moreland, 2017). 최근 스마트미디어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역시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등장한 “디지털 육아(digital nanny)” 혹은 “스마트 시터(smart sitter)” 등의 신조어는 전통적인 부모-자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스마트미디어가 대체하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Braune-Krickau et al., 2021).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녀에게 더 빈번하게 스마트미디어를 제공하고 과다사용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rtella et al, 201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녀의 요구에 무관심,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자녀의 요구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김선희, 윤재희, 2021; 최윤희, 2022). 이때 부모들은 자녀를 손쉽게 통제하고 자녀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김은진, 2020) 자녀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제공하게 된다. 즉 스마트미디어로 자녀의 요구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상호작용을 스마트미디어로 대체한다는 것이다(이금희 등, 2020).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어머니가 보이는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와 같은 곳에 있어도 자녀를 일부러 무시하고 행동을 내버려두는 “방관적 무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Raudaskoski et al., 2017). 즉 자녀와 함께 있어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방임적 태도를 보일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이 유아들에게 스마트미디어를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들이 스마트미디어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자녀의 사용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금정연 등, 2019; 오주현, 박용완, 2019).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할 일이 있거나 휴식이 필요해 자녀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제로 스마트미디어를 제공 할 때는 어머니는 방임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이정림 등, 2013). 어머니가 자녀의 요구를 스마트미디어로 대체하는 경우 어머니는 자녀가 혼자서 사용하도록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자녀와 분리하여 자녀가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혼자 내버려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수빈 등, 2020).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이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방임적 중재를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경로를 예상할 수 있지만 그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 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지도 방법을 위한 부모교육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와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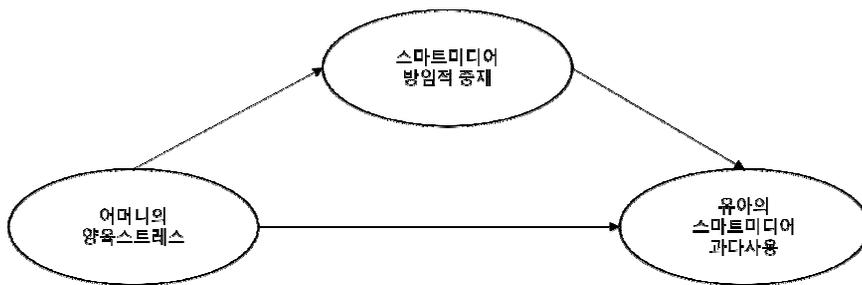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해운대, 기장군에 위치한 어린이집 8개의 만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부모 3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 중 여아는 167명(52.7%), 남아는 150(47.3%)였다. 유아의 연령은 만 3세가 160명으로 전체의 5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만 4세 84명(26.5%), 만

5세 73명(23.0%)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171명으로 전체의 53.9% 였으며 둘째인 경우가 35명으로 11.0%, 셋째 이상인 경우가 111명으로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대졸 이상이 142명으로 전체의 44.8% 였고, 전문대졸 이상이 87명(27.4%), 고졸이 70명(22.1%), 대학원 이상이 18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상태는 비취업이 152명으로 전체의 47.9%를 차지하였으며, 정규직 취업은 142명(44.8%), 시간제는 22명(6.9%), 기타는 1명(0.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 개발한 유아동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스마트폰, 스마트 태블릿과 스마트 TV 등을 총칭하는 용어인 스마트미디어로 용어를 수정한 문경임(201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용어 변경의 적절성에 대해 아동학 전공 교수 1인을 통해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척도는 “우리 아이는 스마트미디어에 빠져서 다른 활동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등의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활을 지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현저성 5문항, 수시로 스마트미디어를 꺼내고 확인하고 초조해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충동,강박적 사용이 4문항,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짜증을 나타내는 금단이 5문항,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할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 내성이 5문항,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으로 신체적, 비행, 일탈의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가 6문항,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으로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들과 심한 갈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인갈등이 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를 통해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를 확인하고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전체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총 3문항 제거하였다. 제거항목은 금단에서 1항목, 내성에서 1항목, 대인갈등에서 1항목이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양육자인 어머니가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범위는 27점에서 108점이다.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9였다. 척도의 하위항목별 Cronbach's α 를 살펴보면 현저성은 .86, 충동,강박적 요인은 .83, 금단은 .79, 내성은 .86, 문제는 .87, 대인갈등은 .89로 나타났다.

2)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를 측정하기 위해 이혜미(2013)의 청소년용 미디어 중재 유형 척도를 유아에 맞게 수정한 문경임(2017)의 스마트 미디어 중재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우리 아이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그냥 놔두는 편이다” 등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범위는 4점에서 16점이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정경미 등(2008)이 Abidin(1995)의 부모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부모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표현과 문맥을 매끄럽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한 문항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부부관계에 더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등이다. 본 척도는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 12문항,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12문항,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 12문항으로 구성된 총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까다로운 아동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중 척도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저하하는 3개 문항을 제거하여 33개의 문항을 최종분석단계에서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 전체의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부모의 고통은 .92,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89, 까다로운 아동은 .8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에 위치한 어린이 집 8곳에서 만3세에서 만5세 사이의 학급에 재원중인 유아 600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사전에 기관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제공한 뒤, 윤리적인 면이나 민감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동의를 얻었으며,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정의 어머니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봉투를 통해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받은 경우라도 자발적으로 연구를 참여하는 어머니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38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와 유아의 정보 등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17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IBM Co., Armonk, NY)와 AMOS 23.0(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값과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RMSEA,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인 NFI, TLI, CFI지수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결과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각 하위영역별 문항의 평균점수는 내성, 대인갈등, 금단, 현저성, 충동강박적 사용, 문제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저성과 금단, 내성, 대인갈등은 전체 점수범위에서 중간값에서 조금 높은 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충동과 문제의 경우 점수범위에서 평균점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대해 스마트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며 이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 사용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는 것과 생활에서 자꾸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문제와 충동,강박적 사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방임적 중재도 평균에서 조금 높은 정도($M=2.17$, $SD=.57$)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고통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M=2.15$, $SD=.38$). 구조방정식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왜도는 절대값 3, 첨도는 절대값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Kline, 2011).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점수범위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현저성	2.15	1-4	.53	.06	-.04
2.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내성	2.64	1-4	.49	.37	-.68
3.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금단	2.44	1-4	.50	.19	-.17
4.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대인갈등	2.52	1-4	.68	.18	-.81
5.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문제	1.53	1-4	.49	.77	-.35
6.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충동강박적 사용	1.63	1-4	.61	.38	-.47
7. 양육스트레스-부모의고통	2.15	1-4	.38	.27	-.25
8. 양육스트레스-까다로운아동	1.39	1-4	.31	.17	-.62
9. 양육스트레스-부모-아동역기능적 상호작용	1.78	1-4	.47	.62	-.44
10. 방임적 중재	2.17	1-4	.57	-.28	-.43

2.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구조적 관계에 앞서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상관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고통의 경우 현저성($r=.13$, $p<.01$), 내성($r=.15$, $p<.01$), 대인갈등($r=.19$, $p<.01$), 문제($r=.13$, $p<.01$), 충동강박적 사용(r

= .18, $p < .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금단($r = .06$)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까다로운 아동의 경우 현저성($r = .16, p < .01$), 내성($r = .22, p < .01$), 금단($r = .24, p < .01$), 대인갈등($r = .32, p < .01$), 문제($r = .31, p < .01$), 충동강박적 사용($r = .43,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경우 현저성($r = .20, p < .01$), 내성($r = .28, p < .01$), 금단($r = .21, p < .01$), 대인갈등($r = .31, p < .01$), 문제($r = .31, p < .01$), 충동강박적 사용($r = .41,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상관을 살펴보면 현저성($r = .35, p < .01$), 내성($r = .37, p < .01$), 금단($r = .17, p < .01$), 대인갈등($r = .36, p < .01$), 문제($r = .36, p < .01$), 충동강박적 사용($r = .28,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방임적 중재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고통($r = .07, p < .01$), 까다로운 아동($r = .11, p < .0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r = .17, p < .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표 2. 변인들의 상관관계 (N = 317)

	1	2	3	4	5	6	7	8	9	10
1. 현저성	1									
2. 내성	.47**	1								
3. 금단	.18**	.27**	1							
4. 대인갈등	.53**	.51**	.33***	1						
5. 문제	.51**	.51**	.48**	.57**	1					
6. 충동강박적 사용	.60**	.43**	.33**	.50**	.53**	1				
7. 부모의 고통	.13**	.15**	.06	.19**	.13**	.18**	1			
8. 까다로운 아동	.16**	.22**	.24**	.32**	.31**	.43**	.43**	1		
9. 부모-아동역기능적 상호작용	.20**	.28**	.21**	.31**	.31**	.41**	.41**	.62**	1	
10. 방임적 중재	.35**	.37**	.17**	.36**	.36**	.28**	.07**	.11**	.17**	1

** $p < .01$

3. 구조모형 검증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방임적 중재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4이하인 것으로 확인된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금단(.31)을 제외하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방임적 중재를 측정하는 문항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오차 및 전반적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어(MacCallum et al., 1999) 항목을 모두 합산한 합성점수를 단일 측정변인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합성점수를 사

용하는 경우 단일항목이라고 할 지라도 과대추정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Raykow, 1997, 장채욱, 성장훈, 2016에서 재인용) 단일지표와 다중지표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다중지표(multi indicator)를 사용하는 방법은 모дели 과소식별되는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Ding et al., 1995, 배병열, 2009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의 합인 합성점수를 단일지표로 사용한 경우와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 방법을 활용하여 2개의 측정변수로 다중지표를 사용한 방법에 대한 모형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문항꾸러미를 만드는 방식은 요인부하량이 가장 적은 변인과 큰 변인을 묶고, 나머지 두 변인을 묶는 방식인 요인묶음방식을 사용하였다. 확인결과 문항꾸러미 방식을 이용한 다중지표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40.834(df = 31, p > .05)$, NFI = .967, TLI = .991, CFI = .994, RMSEA = .025로 단일지표를 사용한 적합도 지수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chi^2 = 25.950, df = 24, p > .05$), NFI = .956, TLI = .987, CFI = .989, RMSEA = .031) 문항꾸러미 방식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χ^2	df	p	NFI	TLI	CFI	RMSEA(90%tile)
모형적합도지수	40.834	31	.111	.967	.991	.994	.025(.00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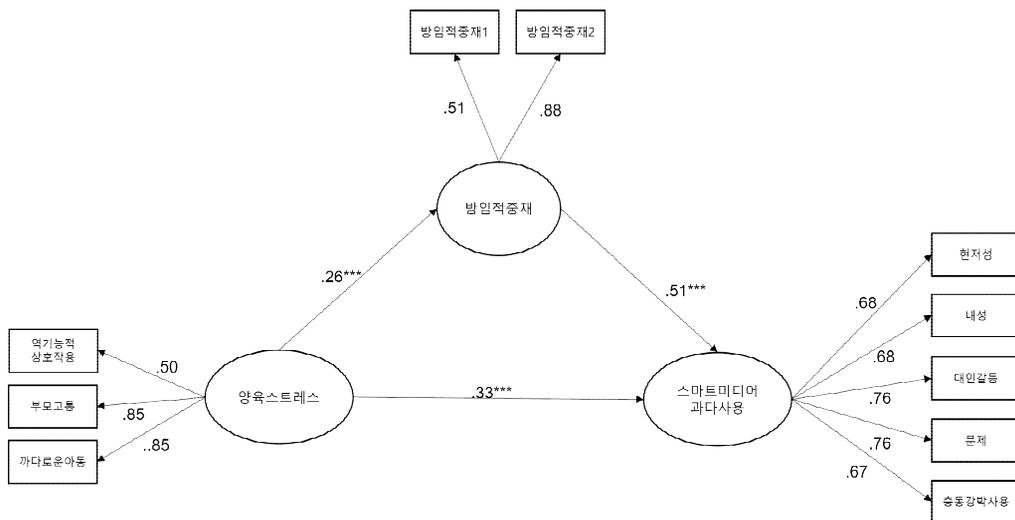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방임적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구조적 관계

각 요인들의 구조모형과 경로계수는 표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beta = .26, p < .001$)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33, p < .001$)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스마트미디어를 제한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유아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임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과다사용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정적인 영향($\beta = .51, p < .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은 증가하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형의 경로지수 (N = 317)

경로	B(S.E.)	β
양육스트레스 → 방임적 중재	.210(.014)	.261***
방임적 중재 →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287(.221)	.507***
양육스트레스 →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138(.028)	.328***

*** $p < .001$.

4. 구조모형 검증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검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방임적 중재를 통해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모형의 효과분해를 실시하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해 500회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방식을 통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01$).

표 5. 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N = 317)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B	β	B	β	B	β
양육스트레스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138	.328***	.046	.137**	.194	.480***

Note. 모형의 간접효과는 95%신뢰수준의 부트스트래핑 500회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음.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경로를 확인해 봄으로써 유아들의 올바른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 및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증가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강민주, 심혜원, 2020; 김진경 등, 2021; 윤정민, 홍정순, 201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Neuman(1995)은 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하면 다른 유형의 활동이 감소하는 미디어 대체가설을 제시한 바 있어,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사용량의 증가는 신체적, 사회적 활동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 즉 가사와 육아, 질병, 등 어머니가 한계에 처했을 때 스마트미디어의 동영상 시청이 유아들의 요구감소로 이어져 어머니의 물리적 한계, 체력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육아도우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결과(김은진, 2020) 이런 미디어 대체가설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놀이나 관심을 요구하고(Sanner & Neece, 2018) 아직 타인에 대한 조망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인 어머니의 상태를 고려해서 욕구를 조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어머니의 고통감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스마트미디어를 대체제로 제공하는 경우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김은지, 전귀연, 2020). 어머니의 육아 부담이 늘어나는 주말,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정림 등, 2013). 이제까지 디지털 매체는 아동 대상 범죄의 증가, 또래와 바깥놀이의 감소 등 유아의 환경의 변화(김지은, 신나리, 2014)로 인해 어머니가 선호하는 놀잇감이었다(심숙영, 2009). 더욱이 스마트미디어는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조작이 간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유아들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머니들은 일종의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스마트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느 정도 교육적인 자극이나 정보사회를 위한 미디어 사용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권연정, 이승연, 2013) 자녀와 놀이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일부 감소될 수 있어 사용빈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 증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방임적 지도가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박라진, 2016; 박선영, 2013; 전주혜, 2020)과 불일치한 반면, 부모의 방임적 중재는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남경희, 2018)를 지지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이제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미디어 중재방식을 살펴 본 연구가 대체로 적극적 중재와 제한적 중재에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Wu et al., 2014). 부모의 중재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종단연구에서 부모는 유아가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숙해지면 자율성을 획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어(Beyens et al., 2019) 방임적 중재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유아기 어머니는 여전히 스마트미디어 사용에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김지선, 이강이, 2019; 이병호, 2012)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칙, 주제를 확인하는 등의 감독 등의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보람, 이강이,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사용과 어머니의 태도변화를 살

퍼 본 연구에서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전체 사용이 오락이나 흥미를 위한 동영상 시청이 나머지 사용목적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들의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자제시키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응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소혜진 등, 2018) 감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임적 중재방식이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지도 방법에서의 실천의 어려움을 고려해볼 수 있다. Rideout(2014)은 부모는 긍정적인 중재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자녀의 미디어 사용과 콘텐츠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제 지도방법을 잘 몰라서 지도하기 어렵다고 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김환남 등,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즉 지도하고 싶어도 실천방법을 모르는 것은 방임적 중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변화하면 자녀 특히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경, 윤혜주, 2020). 따라서 유아들이 사용시간 동안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술적인 지원과 유아들이 선호하는 앱이나 미디어의 내용 분석, 사용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앱 등의 사용방법교육, 자녀에게 올바른 사용을 위한 훈련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방임적 중재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증가시키는 부분매개를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중재노력과 긍정적인 방식의 중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Evans et al., 2011). 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방임적 태도를 취하기 쉽고(Christakis, 2018; Rodriguez, 2010) 직, 간접적으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이다(Crum & Moreland, 2017). 이제까지 유아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다소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김현미, 도현심, 2014),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부모들에게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홍정은 등, 2022) 양육스트레스가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Dalop과 Woods(2018)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의미하며, 최근 부모들이 유아들과 갈등상황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에게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를 받은 부모는 자녀에게 “방관적 무시” 즉 자녀에게 차단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한다고 하였다(Raudaskoski et al., 2017).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는 따라서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고(Ziegenhain & Deneke, 2012) 관심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Sanner & Neece, 2018). 이때 스마트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기기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부모는 방임적 중재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부모의 경우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윤대현, 2021). 즉 부모가 스마트미디어의 목적이 자녀와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자녀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방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동안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공간에서 머무르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민석, 문혁준, 2015; 이현주 등, 2015). 그리고 스마트미디어의 사용은 유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였다(권혜림, 이완정, 2022). 따라서 이 경우 자녀와 분리하고 상호작용을 감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 감소 모델(harm reduction approach)은 처음에는 마약 등의 심각한 중독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처벌보다는 중독 상황의 유입을 감소하기 위해 접근이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다(Marlatt, 1996). 위험성 감소 접근방법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중독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Erickson, 1995). 따라서 부모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미디어사용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대처방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자녀가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놀이시설과 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과다사용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김대웅 등, 2019). 유아들이 스마트미디어를 사용할 때 어머니들에게 앱을 활용하여 함께 놀이를 하도록 한 프로그램의 결과에서도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유아의 과다사용의 감소(권혜림, 이완정, 2022)했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을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미디어가 중요한 여가생활이나 놀이로 여겨지는 유아들에게 여가를 위한 접근성이 높은 공간들을 확충하는 등의 오프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한다면 과다사용의 위험성을 다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증가하는 가운데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에서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하여 가정 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나 범죄의 위험, 맞벌이의 증가 등의 변화는 가정 내 스트레스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칫 이런 스트레스를 다소 과소평가할 수 있으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인 방임적 중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방임적 중재방식은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구체적인 지도방법이나 긍정적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방임적 중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측정시기가 조금 지난 후에 분석이 이루어져 최근 코로나(covid-19) 등의 상황에서 스마트미디어 사용의 변화정도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교육기관의 비대면 운영과 재택근무의 활성화 등으로 변화된 가정의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중재방식 등의 측정방식의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다사용도 어머니의 응답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인 기준이나 본인의 개인적

인 기준에 따라 응답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중재방식도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에서 중재방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서로 상관이 높아(Warren & Aloia, 2019) 각각 유형별로 구별되고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유아들의 스마트미디어 과다사용과 중재방식에서 유아의 사용 모습에 대한 관찰, 아버지의 응답 항목 등을 추가하는 등 신뢰성있는 측정을 위한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유아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지역의 결과와 비교,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주, 심혜원 (2020). 양육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만족도와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3(2), 23-50. <https://doi.org/10.47801/KJIMH.13.2.2>
- 강보람, 이강이 (2018).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5(1), 1-23. <https://doi.org/10.45284/kjhd.2018.25.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권연정, 이승연 (2013). 만 2세반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지도 양상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73-109.
- 권혜림, 이완정 (2022). 디지털 환경에서 영유아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1), 1-22. <https://doi.org/10.14698/jkce.2022.18.01.001>
- 금정연, 정정희, 정효진 (2019).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 스마트폰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 : 유아 놀이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2), 75-97. <https://doi.org/10.22154/JCLE.20.2.4>
- 김대웅, 김창숙, 박윤현 (2019). 공공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이용 편리성, 양육 스트레스, 유아 미디어 이용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18. <https://doi.org/10.20437/KOAECE24-5-01>
- 김민석,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 분석 및 부모 관련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1), 77-99.
- 김선희, 윤재희 (2021).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5(3), 197-225. <https://doi.org/10.32349/ECERR.2021.6.25.3.197>
- 김윤경, 김호정, 윤미경, 박주희 (2018). 유아의 스마트 기기 최초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개입행동의 조절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 56(6), 541-533. <https://doi.org/10.6115/fer.2018.039>
- 김윤나, 박희숙 (2016). 유아의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과 놀이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0(4), 337-353.
- 김은영, 임신일 (2021).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의 유튜브 시청 실태, **아동교육**, 30(1), 79-101. <https://doi.org/10.17643/KJCE.2021.30.1.04>
- 김은지, 전귀연 (2020).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자기효능감과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지도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의 이중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8(4), 59-79. <https://doi.org/10.7466/JFBL.2020.38.4.59>
- 김은진 (2020). ‘유튜브 육아’ 연구: 육아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튜브 이용과 통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5(3), 41-85. <https://doi.org/10.47020/JLC.2021.08.25.3.41>
- 김지선, 이강이 (2019).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 시간,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0(6), 63-76. <https://doi.org/10.5723/kjcs.2019.40.6.63>
- 김지은, 신나리 (2014). 유아기 어머니의 놀이성, 놀이지지신념 및 양육스트레스가 친밀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3(4), 571-585. <https://doi.org/10.5934/kjhe.2014.23.4.571>
- 김진경, 강은영, 윤혜주 (202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6), 149-168. <https://10.14698/jkce.2021.17.06.149>
- 김진경, 윤혜주 (2020).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6), 53-70. <https://doi.org/10.14698/jkce.2020.16.06.053>
-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환남, 이선애, 이은경, 천재현, 김성희 (2014). 스마트미디어 노출 환경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4), 127-153.
- 남경희 (201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미디어 중재역할이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3(1), 117-137.
- 문경임 (2017). 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과 부모 관련 변인.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라진 (2016). 유아의 실행기능 및 부모중재가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령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개념화. **열린부모교육연구**, 13(1), 213-237. <https://doi.org/10.36431/JPE.13.1.11>
- 박선영 (2013). 아동의 스마트기기 중독성과 부모 중재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09). Amos 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제2판). 청람.

- 서민영, 임은미 (2010).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게임중독경향과 인성특성의 관계. **아동교육**, 19(4), 163-175.
- 석민아, 문인경, 이병호 (2021). 코로나 19로 인한 부모의 가정보육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3), 199-230. <https://doi.org/10.20437/KOAECE26-3-08>
- 소혜진, 임성민, 조상연, 고민숙, 문진화 (2018).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의 변화: 2015-2016년과 2017년의 연구결과 비교. **대한소아신경학회지**, 26(4), 251-262. <https://doi.org/10.26815/jkns.2018.26.4.251>
- 심숙영 (2009). 아동놀이와 뉴미디어 게임, **아동과 권리**, 13(1), 107-129
- 안수빈, 홍예지, 박영아, 이강이 (2020).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스마트기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함께 사용여부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7(1), 185-205. <https://doi.org/10.15284/kjhd.2020.27.1.185>
- 오주현, 박용완 (2019).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 및 부모 인식 분석. **육아정책연구**, 13(3), 3-26. <https://doi.org/10.5718/kcep.2019.13.3.3>
- 윤대현 (2021. 05. 04).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행복한 부모.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1/05/04/7AASWIZ7IFHWLIDLIT6HO3R3N5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에서 2022년 11월 10일 인출
- 윤정민, 홍정순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다차원적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1(3), 151-174. <https://doi.org/10.36431/JPE.11.3.8>
- 이금희, 김성재, 유혜진 (2020). 유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한 부모요인 규명: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3), 349-368. <https://doi.org/10.4040/jkan.19186>
- 이병호 (2012). 가정에서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탐색연구. **유아교육학논문**, 16(6), 511-532.
-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 실태 및 보호대책**. 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주, 채선미, 방경숙, 최희승 (2015). 학령전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경향과 문제행동및 어머니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2), 107-114. <https://doi.org/10.4094/chnr.2015.21.2.107>
- 이혜미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와 또래집단의 중재유형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명희, 박윤조 (2011). 영아의 의사소통능력 및 정서발달과 영아특성변인, 어머니특성변인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1(4), 57-82.
- 장지우, 김선희 (2020).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유아의 자기통제력 및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정도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1(1), 61-74. <https://doi.org/10.5723/kjcs.2020.41.1.61>
- 전주혜 (2020).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의 지속적 예방을 위한 요인 탐구 : 스마트폰리터러시 전용

-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초원 (2014).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유아의 단어 및 도형 기억과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Korean-Parenting Stress Index: KPSI) 의 표준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689-707.
- 정여주, 신윤정, 장유진, 고경희, 윤제현, 이도연, 김소아, 전보성 (2022). 청소년 게임이용문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23(2), 421-445. <https://doi.org/10.15753/aje.2022.6.23.2.421>
- 장채욱, 성장훈 (2016).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 변인과 합성 점수의 추정방법 비교. *스포츠과학연구지*, 29, 13-26.
- 제정희 (2021).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과의존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 (2022). 어머니 우울 증상이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순차매개효과와 유아 발달 인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지영 (2021).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스마트미디어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3(3), 187-213. <https://doi.org/10.36431/JPE.13.3.9>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2016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 홍정은, 홍수중, 이경숙 (2022). 24 개월 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특성 분석과 양육군집 탐색에 대한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5(1), 19-47. <https://doi.org/10.47801/KJIMH.15.1.2>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ediatric Psychology.
- Beyens, I., Valkenburg, P. M., Piotrowski, & J. T. (2019).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al mediation across early and middle childhood.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5(2), 226-250. <https://doi.org/10.1093/hcr/hqy016>
- Braune-Krickau, K., Schneebeli, L., Pehlke-Milde, J., Gemperle, M., Koch, R., & von Wyl, A. (2021). Smartphones in the nursery: Parental smartphone use and parental sensitivity and responsiveness within parent-child interaction in early childhood (0-5 years): A scoping review.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2(2), 161-175. <https://doi.org/10.1002/imhj.21908>
- Bremer, J. (2005). The internet and childre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hild and Adolescents Psychiatric Clinics*, 14(3), 405-428. <https://doi.org/10.1016/j.chc.2005.02.003>
- Clark, L. S. (2011).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21(4), 323-343. <https://doi.org/10.1111/j.1468-2885.2011.01391.x>
- Christakis, E. (2018). The dangers of distracted parenting. *The Atlantic*, 322(1), 11-16.
- Crum, K. I., & Moreland, A. D. (2017). Parental stress and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outcomes: The role of abuse potential over tim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11), 3067-3078. <https://doi.org/10.1007/s10826-017-0822-5>
- Dalope, K. A., & Woods, L. J. (2018). Digital media use in families: Theories and strategies for interventio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27(2), 145-158. <https://doi.org/10.1016/>

- j.chc.2017.11.001
- Erickson, P. G. (1995) Harm reduction: What it is and is not, *Drug and Alcohol Review*, 14(3), 283-285, <https://doi.org/10.1080/09595239500185361>
- Evans, G. W., Brooks-Gunn, J., & Klebanov, P. K. (2011). Stressing out the poor. *Pathways*, 23(2), 22-27. <https://doi.org/10.4324/9780429494642-55>
- Jackson, L. A., Von Eye, A., Fitzgerald, H. E. Witt, E. A. & Zhao, Y. (2011). Internet use, videogame playing and cell phone use as predictors of children's body mass index(BMI), body weight,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and over all (1), self-estee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1), 599-604, <https://doi.org/10.1016/j.chb.2010.10.01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 Kuss, D. J. & Griffiths, M. D. (2012). Internet and gaming addic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neuroimaging studies. *Brain Sciences*, 2(3), 347-374. <https://doi.org/10.3390/brainsci2030347>
- Livingstone, S., & Helsper, E. J.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Electronic Media*, 52(4), 581-599. <https://doi.org/10.1080/08838150802437396>
- Marlatt, G. A. (1996). Harm reduction: Come as you are. *Addictive Behaviors*, 21(6), 779-788. [https://doi.org/10.1016/0306-4603\(96\)00042-1](https://doi.org/10.1016/0306-4603(96)00042-1)
- MacCallum, R., Browne, M.,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https://doi.org/10.1037/1082-989X.1.2.130>
- Neuman, S. B. (1995). *Literacy in the television age: The myth of the TV effect*. Ablex.
- Sanner, C. M., & Neece, C. L. (2018). Parental distress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behaviors as mediat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2), 591-601. <https://doi.org/10.1007/s10826-017-0884-4>
- Suárez-Álvarez, R., Vázquez-Barrio, T., & de Frutos-Torres, B. (2022). Parental Digital Mediation According to the Age of Minors: From Restraint and Control to Active Mediation. *Social Sciences*, 11(4), 178. <https://doi.org/10.3390/socsci11040178>
- Raudaskoski, S., Mantere, E., & Valkonen, S. (2017). *The influence of parental smartphone use, eye contact and 'bystander ignorance' on child development*. In *Media, family interaction and the digitalization of childhood*. (pp. 173-184). Edward Elgar Publishing.
- Rideout, V. (2014). *Learning at home: Families' educational media use in America*. In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Joan Ganz Cooney Center at Sesame Workshop.
- Rodriguez, C. M. (2010). Parent-child aggression; Association with child abuse potential and parenting style. *Violence and Victims*, 25(6), 728-741. <https://doi.org/10.1891/0886-6708.25.6.728>
- Wartella, E., Rideout, V., Lauricella, A. R., & Connell, S. (2014). *Revised parenting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y: A national survey*. [Report for the center on media and Human development school of communic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Northwestern University.

- Warren, R., & Aloia, I. (2019). Parenting style, parental stress and mediation fo children's media use,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83(4), 483-500. <https://doi.org/10.1080/10570314.2019.1582087>
- Wu, C. S. T., Fowler, C., Lam, W. Y. Y., Wong, H. T., Wong, C. H. M., & Yuen Loke, A. (2014). Parenting approaches and digital technology use of preschool age children in a Chinese community. *Italian Journal of Pediatrics*, 40(1), 1-8. <https://doi.org/10.1186/1824-7288-40-44>
- Ziegenhain, U., & Deneke, C. (2012). Entwicklungspsychopathologische Voraussetzungen der Erlebens- und Verarbeitungsweisen von Kindern psychisch kranker Eltern. In M. Kölch, U. Ziegenhain, & J. M. Fegert (Eds.). *Kinder psychisch kranker Eltern. Herausforderungen für eine interdisziplinäre Kooperation in Betreuung und Versorgung* (pp. 14-39). BeltzJuventa.

논문투고 : 22.08.22.

수정원고접수 : 22.11.07.

최종게재결정 : 22.12.05.